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FREE ECONOMIC ZONE

GLOBAL BUSINESS INNOVATION HUB

IFEZ



IFEZ JOURNAL [KOR]

2026. 05+06 VOL.129

ifez

ifez Journal

THE SKY 184



KOR

이번호 표지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Vol. 129

2026
05 + 06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CONTENTS



BUSINESS

04 SPECIAL THEME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연결되는 IFEZ 교통망

10 ISSUE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관광의 활력'

14 6-CORE

IFEZ GLOBAL CORE
Second.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MICE 산업

16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SPECIAL INTERVIEW

22 COMPANY

IFEZ 내 글로벌 기업을 만나다
<대봉엘에스 편>

WITH US

26 INSIDE

도시의 경관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다
<도시디자인단 편>

30 CONTRIBUTION

강화남단 개발 전략, 답은 '브랜딩'에 있다

32 NOTICE

Insight in site, IFEZ

LIFE

34 TRIP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하는 IFEZ 생태 체험 여행
<IFEZ NATURE TRIP>

38 CULTURE

IFEZ 문화소식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42 EVENT

일타강사 / 일상 한 컷 /
Opinion Leader's Review / 후기를 부탁해

ifez Journal

IFEZ BIMONTHLY MAGAZINE 2026. 05+06 Vol. 129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6년 5월 1일 발행호 통권 제129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Cover story

세계 최고 높이 184m의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에서 청라와 영종을 오가는 교통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망으로 전 세계와 하나로 연결되는 인천. 글로벌 Top 10 도시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All Ways Lead **to IFEZ**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연결되는 IFEZ 교통망

IFEZ의 경쟁력은 세계를 향해 열린 교통망에서 비롯된다.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가 촘촘히 연결된 입체적 교통 인프라는 관광과 물류를 넘어 산업과 투자까지 확장되며 도시 성장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IFEZ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그 핵심 교통망에 대해 알아본다.





하늘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찾은 방문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인천국제공항

SKY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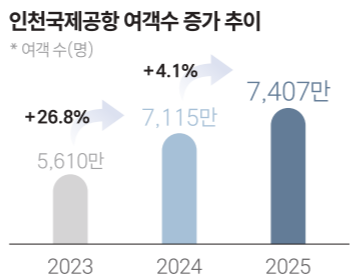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 인천국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영종·청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와 물류의 거점이자 국제 개방도시로 조성하고자 출범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전략과 조성이 이루어졌다. 국제 개방도시를 향한 상징적인 첫걸음이 인천국제공항이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25년, 개항 이후 역대 최대 여객과 운항 실적을 기록하며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도시의 성장도 이끌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항공과 물류, 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항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공항 배후에는 복합리조트와 MICE 시설이 조성되며 관광과 비즈니스 기능이 함께 확장되었다.

현재는 항공정비(MRO) 산업과 항공 관련 시설이 집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과거 갯벌과 농경지 중심이었던 영종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사람과 물류, 산업과 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NOW!

-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내 '항공 MRO(항공기 수리·정비)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인천공항, UPS 특송물류센터 확장(연간 19만 톤)



OCEANLINE

바닷길을 여는 물류·관광 허브, 인천항과 인천신항

IFEZ는 세계와 연결된 교통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 또 하나의 축에는 바닷길을 여는 인천항과 인천신항이 있다. 인천항은 크루즈터미널과 국제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물류와 관광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항만으로, 해양을 통한 글로벌 연결성을 확대해 왔다. 또한 인천신항은 수도권 수출입을 담당하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 최근에는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상부공사가 착공되며 '시 기반 완전 자동화 항만' 구축이 본격화되었다. 해당 부두에는 원격·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물류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U-타입 장치장 배치를 통해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등 첨단 항만 운영 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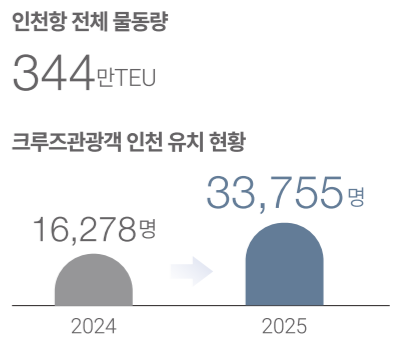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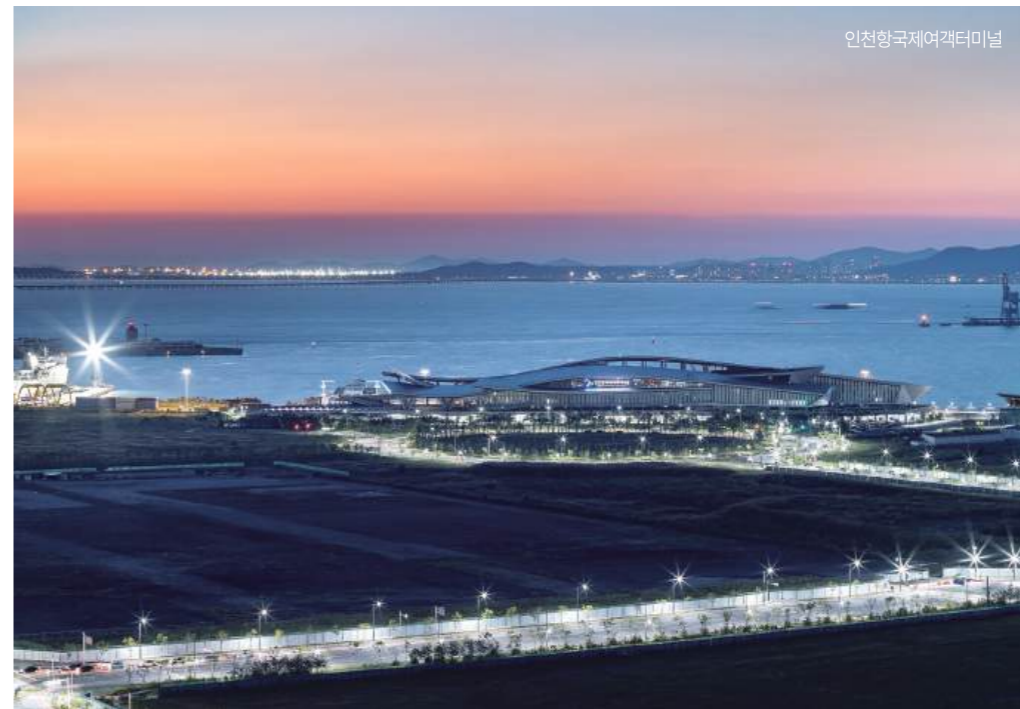
이러한 관광과 물류가 결합된 복합 해양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 인프라는 IFEZ를 세계와 연결하는 바닷길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NOW!

- ✓ 올해 인천항 크루즈 131여 항차,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 예상
- ✓ 항만배후단지에 50여개 물류 기업 유치, 2025년 항만 물동량 실적 67만 6,000TEU



시 기반 완전 자동화 항만 등 첨단 미래 항만으로 구축되는 인천신항



인천신항 개발 규모

프로젝트 총비용
2조 6,469억 원

선석 수 하역능력
6개 354만 TEU

*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BRIDGE LINE

인천의 도시를 잇는 도로망
영종대교, 인천대교, 청라하늘대교

1. 영종대교
2. 청라하늘대교 마라톤 개최
3. 인천대교



영종대교 - 공항 접근 관문

4.42km

인천대교 - 송도~공항 직결

21.38km

청라하늘대교 - 청라~영종 연결

4.68km



NOW!

- ✓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하루 평균 3만 4,700대의 차량 이용
- ✓ 세계최고높이(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개장, 상부전망대 및 옛지워크 조성 완료

IFEZ는 공항과 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그리고 2026년 1월 개통된 청라하늘대교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완성하고 있다.

영종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내륙을 연결한 관문으로 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인천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을 직접 연결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흐름을 효율화했다. 여기에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송도·영종·청라를 하나의 공항 경제권으로 잇는 교통 축이 완성됐다. 송도와 청라를 영종으로 연결해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와 상품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로 수출하는 가교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교량을 중심으로 구축된 도로망은 사람과 물류의 이동을 촘촘히 이어주며, 공항과 항만, 산업과 관광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IFEZ의 도로 인프라는 도시 전체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RAILWAY

전국으로 확장되는 철도망
GTX-B, 인천발 KTX,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IFEZ는 공항과 항만, 도로망에 더해 철도 인프라를 전국으로 확장하여 교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GTX-B 노선과 인천발 KTX,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IFEZ의 접근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서울 도심을 거쳐 경기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로, 현재 착공이 본격화되며 수도권 동서축을 빠르게 잇는 교통망 구축이 진행되는 중이다. 또한 인천발 KTX는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며,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도 전국 주요 도시로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으로 인천의 교통 자립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후속 절차가 추진되며, 도시 내부와 외부를 촘촘히 연결하는 광역 교통체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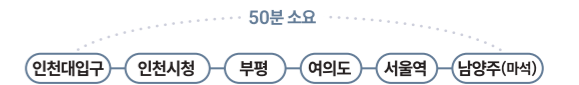
NOW!

- ✓ GTX-B 본사 송도국제도시 내 건립 확정
- ✓ 현재 인천발 KTX 노반공정률 84.5%, 2026년 12월 개통
- ✓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노선별 추진 단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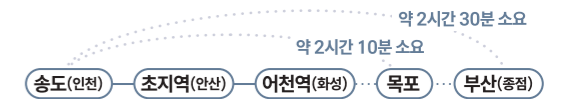
GTX-B

82.8 km 연결 예정



인천발 KTX

3.19 km 신설



*2026년 12월 개통 예정, 경부고속철도 연결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총 연장 123.9 km 신설



도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관광의 활력'

ISSUE 1 청라하늘대교 전망대·옛지워크 첫 공개, 시민에게 활짝 열린 하늘길

ISSUE 2 한옥호텔 경원재 바이 워커힐 레스토랑 '다이닝 송' 리모델링 후 리오픈



ISSUE 1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세계가 공인한 해상 랜드마크 '더 스카이 184' 개장 임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하늘대교에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를 선보이며 글로벌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진다. 2026년 5월 정식 개장 예정인 청라하늘대교의 주탑 전망대 '더 스카이 184(The Sky 184)'는 지상 184.2m 높이로,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라는 타이틀과 함께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며 독보적인 인프라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곳은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을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역동적인 체험 공간으로 채워졌다. '옛지워크'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며, 서해의 낙조를 오롯이 품은 '해상 보행데크'는 방문객들에게 평온한 휴식을 제공한다. 특히 주탑 하부 공간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아트와 바다 영화관 등은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 문화 콘텐츠로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몰입감을 더한다. 청라하늘대교는 이제 단일 시설을 넘어, IFEZ의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인천시민에게 상부 전망대와 옛지워크 이용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영상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관광 거점

청라하늘대교는 인천국제공항 환승투어, 인천시티투어, 300리 자전거 이음길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IFEZ로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사회 환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인천시민에게 상부 전망대와 옛지워크 이용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교량 하부 공간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부심을 체감하도록 설계했다.

인천시는 "청라하늘대교는 인천의 자부심이자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라며, "안전과 편의시설을 완벽히 점검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운영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SSUE 2

**국내유일 5성급 한옥호텔
경원재 바이 워커힐**

경원재는 2015년 개관한 5성급 전통 한옥호텔로, 전통과 품격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 거점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숙박 경험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원재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 워커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2025년 5월 1일부로 경원재 위탁 운영권을 호텔 운영 전문 법인 대일인터내셔널하스피탈리티그룹에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체결로 경원재는 '경원재 바이 워커힐'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30년 4월 말까지 대일인터내셔널하스피탈리티그룹은 경원재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한편 경원재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과의 접점을 넓혔고, 올해에는 새로 리모델링한 다이닝 송 공간에서 '돌잔치 페어'를 개최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행사를 선보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경원재 공간과 시민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미학을 조화롭게 담은 경원재 '다이닝 송'

**전통 한옥의 고즈넉함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다이닝 송' 리모델링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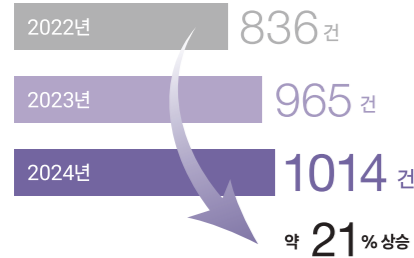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5성급 전통 한옥 호텔 '경원재 바이 워커힐'이 프리미엄 레스토랑 '다이닝 송(DINING SONG)'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 리뉴얼은 한지의 부드러운 물결과 한옥 특유의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투숙객은 물론 IFEZ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한국적 미학의 정수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면 통창을 통해 고즈넉한 한옥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을 대폭 확대하여 가족 모임과 비즈니스 미팅에 최적화된 독립적 다이닝 환경을 구축했으며, 제철 산야초를 활용한 '산야초 금반'과 '백화반' 등 한국적 미학을 담은 프리미엄 코스 요리를 통해 미식의 정수를 선보인다. 경원재 관계자는 "전통의 가치에 현대적 편의를 더한 이번 재개관을 시작으로, 인천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한옥 랜드마크로서 최상의 품격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FEZ GLOBAL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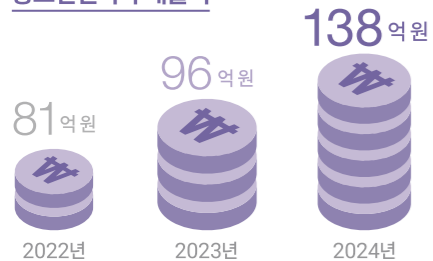
송도컨벤시아 연도별 MICE 주요 실적

IFEZ에서 MICE 산업의 상징적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는 송도컨벤시아의 실적 데이터를 통해 MICE 산업의 성장세를 알아본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실적은 IFEZ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MICE 산업 분야를 빛내고 있다.

송도컨벤시아 행사 개최 건수



송도컨벤시아 매출액



Second.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MICE 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IFEZ. 그 눈부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주목한 동력은 IFEZ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MICE 산업’이다.

이번 호에서는 IFEZ의 대표적인 MICE 행사를 통해 MICE 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적 데이터를 통해 MICE 산업의 성장 현황을 알아본다.



IFEZ MICE 산업, 역대 최고 성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의 도약 견인

MICE 산업은 기업 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를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IFEZ는 MICE 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지원을 해왔다. 이는 2025년 MICE 주요 행사가 치러지는 송도컨벤시아가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작년에는 ‘2025 APEC 고위관리회의’와 ‘2025 IFEZ 글로벌 ESG-AX 포럼’ 등이 운영되었으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와 ‘하이룩스 인천’ 같은 대형 전략 전시도 활발히 개최되었다. 이러한 MICE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참가 기업의 네트워크 연결과 판로 확대 등 추가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대표적으로 ‘2025 IFEZ 글로벌 ESG-AX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했으며, ‘호라이즌 유럽’ 국제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도 연결되었다. 이처럼 MICE 산업은 IFEZ의 국제적 외연을 넓히고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6년에도 이어지는 성장세, MICE 산업으로 경제·관광 시너지 극대화

IFEZ의 MICE 산업 성장세는 2026년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올해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로봇 대회 ‘로보컵(Robocup) 2026’이 열린다. 행사에는 약 1만 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인천 로보랜드 분양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 국내외 유망 로봇 기업의 유치도 추진한다. 영종 인스피어 리조트에서도 ‘제18차 WFDSA 직접판매 세계대회’가 개최된다. 세계직접판매연맹(WFDSA)이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글로벌 기업 CEO와 고위 정책 결정자,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세계 경제 트렌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인천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관광 투어를 연계함으로써, 인천의 독보적인 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부터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MICE 산업은, 명실상부 IFEZ 글로벌 비즈니스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 할 수 있다.



송도컨벤시아 2025년 주요 실적

총 행사수
1,033 건

국제회의 수
196 건 전년 대비 263% 증가

가동률
59% 안정적 운영
한계 수준은 60%

생산유발효과(2025년)
약 5,812 억 원

고용유발효과(2025년)
6,237 명

송도컨벤시아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문의
032-210-1114



Songdo Convensia

ifez News

1

인천스타트업파크, 'K-스타트업' 유니콘 도약에 날개를 달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을 검증하고 사업화하는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스타 I 입주기업 '모이다'가 그 사례다. 최진명 대표는 20년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모션인식 기술과 IoT 디바이스를 융합한 맞춤형 피트니스 솔루션 '올바디'를 개발했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을 거쳐 기술 신뢰성과 시장성을 검증했고, 최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일본, 유럽, 미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지난해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실증에서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강화하는 사업에 나선다. 먼저, 인천경제청은 성과기업을 더 많이 입주시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인스타Ⅲ를 확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조례 개정을 추진, 입주 조건을 창업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해 초기 스타트업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약 20개 기업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AI 실증(TRYOUT)도 본격 가동된다. 인천도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셀트리온, 기아, 카카오모빌리티, SK에코플랜트 등 14개 민간기업이 협력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 총 47개 스타트업을 선정해 평균 3천만 원, 최대 5천만 원의 실증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AI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유럽연합의 국제 도시 협력 프로그램(IURC)에 참여해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오사카, 카오슝 등과 '도시안전 데이터 기반 AI 국제 공동실증' 모델을 가동한다. 올해 11월 국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7년 공동 파일럿 기획, 2028년 글로벌 AI 실증 허브 구축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실증-투자-판로-글로벌'로 도약하는 성장경로를 완성해 나간다는 포부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톱 텐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2

2026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본격화, 창업 생태계 확장 기반 마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026 K-바이오랩허브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는 2028년 준공 예정인 본사업에 앞서 추진되는 단계로, 총 50개 멤버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창업 지원과 송도 앵커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연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운영 주체 변경을 기반으로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1,072m² 규모 공간에 실험·사무시설을 구축했으며, 신약개발 분야 스타트업 8개사가 입주해 운영 중이다. K-바이오랩허브는 향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3

송도·영종·청라 주택 태양광 지원 확대,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영종·청라 지역 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를 대상으로 약 62개소를 지원하며, 태양광(3kW 기준) 최대 120만 원, 태양열(6m² 기준) 최대 84만 원, 지열(17.5kW 기준) 최대 301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4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태양광 기준 보급 완료 시 연간 238MW 전력 생산과 가구당 월 9~1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에너지 자립 기반을 넓히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힘을 보탬 전망이다.



4

송도 달빛공원 RC경기장 준공, 생활형 레저·관광 거점 조성

인천광역시 송도 달빛공원 일원에 RC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RC카 경기장으로, 국제무선조종자동차경기협회(IFMAR) 규격을 갖춘 온로드 서킷(포장 경주로) 형태로 조성됐다. 약 2만m² 규모 공간에 주·보조·어린이 경기장과 관람석, 조종대 등 시설이 들어섰으며, 시민 체험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하다. 시범 운영과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거쳐 6~7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 제안 공약으로 추진된 생활밀착형 공원시설 확충 사례로, 여가 인프라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달빛공원을 복합 레저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지역 방문 수요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5

청라 커넥티드카 인증센터 개소, 미래 차 산업 기반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로봇랜드에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를 개소하고 미래 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현재 무선통신 안전 성능 및 적합성 인증·평가 장비 12종 가운데 9종을 확보했으며, 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부지 2,512m², 연면적 4,774m² 규모로 조성돼 무선통신 성능 시험과 인증을 통합 지원한다. 총 148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선 통신 성능 검증과 인증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 조성을 시작으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력을 높여갈 예정이다.



6

외국인 주택 구입 지원 강화, '스윗홈 가이드' 서비스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의 주택 구입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시행한다. 2026년 2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요구되면서 전문적인 행정 안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맞춰 1:1 사전 컨설팅, 서류 작성 지원, 사후 의무 안내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검토와 의무사항 안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예비 구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7

청라호수공원·커널웨이 재정비, 수변문화·야경 명소 조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호수공원과 커널웨이를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총 21억 원을 투입해 수변 휴식공간과 체험·문화시설, 야간 경관조명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라호수공원에는 수로형 물길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커튼분수·쿨링포그 등을 마련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청라 커널웨이에는 체험형 친수문화공간을, 창해문화공원 일원에는 친수형 체험 공간과 휴게시설을 조성하며, 정서진공원 일원 커널웨이 구간에는 야간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5월과 6월 각각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낮에는 휴식 공간, 밤에는 야경 명소로 기능을 강화한다. 인천경제청은 도심 수변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수요 확대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8

인천 시민 대상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교통비 부담 완화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화 대상이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된다. 4월 6일부터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소유 차량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되며, 대상자는 3월 30일부터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감면 자격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전출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청라하늘대교는 길이 4.68km, 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다.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3만 4천 대(3월 5일 기준)가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일부 지역 주민에 한해 감면이 적용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인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9

스타트업파크펀드 2호 500억 규모 조성, 투자 본격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중심으로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인천스타트업파크펀드 2호'를 조성하고, 기업 발굴과 투자에 본격 나선다. 이번 펀드는 인천경제청이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출자하고 민간 벤처캐피탈(VC)이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운영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구조로, 당초 목표액 3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5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됐다. 펀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모빌리티·로보틱스 등 인접 기술 산업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고, '캡스톤 2026 시혁신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IFEZ 내 분사, 연구소, 공장 등을 보유한 IFEZ 4대 전략산업 분야 업력 7년 이하 기업이며,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하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실증(TRYOUT) 사업과 연계해 발굴, 투자, 성장 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투자 생태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10

테르메 인천 본협약 체결, 골든하버·웰니스 관광 거점 도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웰니스 기업 테르메그룹과 '테르메 코리아 인천' 사업의 본협약을 체결하고 골든하버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송도 골든하버 약 9만 9,041m² 부지에 복합 웰니스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착공해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개발로 송도 골든하버 부지에 실내 돔형 스파와 워터파크, 복합문화시설을 결합한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약 2조 8,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테르메 코리아 인천' 사업은 송도를 해양관광과 웰니스 산업이 결합된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 전체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국제학교 적극 유치,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인천시는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 및 명문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월 24일 위컴 예비와 럭비 스쿨 영국 본교를 찾은 것도 그 일환이다. 유정복 시장은 영종미단시티 국제학교 우선협상대상자인 위컴애비를 방문해 캠퍼스 설립과 관련한 국내 법규 준수와 기관 간 역할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약 130년 전통의 위컴애비는 영종미단시티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 사업협약 체결 후 2028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450년 역사의 럭비스쿨과도 협력해 송도 캠퍼스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며 글로벌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Interview No. 13
IFEZ 내 글로벌 기업을 만나다 <대봉엘에스>

INTRODUCING GLOBAL COMPANIES IN IFEZ

K-뷰티를 떠받치고 있는 대봉엘에스는 지난해 송도신도시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에 사옥을 신축하여 원료 개발부터 제조와 임상실험까지 전 과정을 연결한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국제협력의 시야를 넓히고 있는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특보는 박진오 대봉엘에스 대표를 만나 회사의 연혁과 그린 바이오 기술의 현황, 그리고 클린 뷰티와 K-뷰티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국제협력특보



박진오
대봉엘에스 대표



신용석 회사 건물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4층 내부 정원에서 본 두 개의 철제 조각작품은 어떤 것인가요.

박진오 저희 회사 창업 초기인 80년대에 쓰던 반응기와 전기분해 장치를 버리지 않고 회사 역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숙명여대 교수가 기계를 약간 손질해서 작품으로 만들자는 제의를 하셔서 설치 작가가 철제 조각품으로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신용석 대봉엘에스는 80년대 어떤 경로로 창립되었나요.

박진오 저의 부친 박종호 회장님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의약품 개발 연구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의약품 개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봉파인케미칼을 거치면서 헤어 퍼머넌트 원료를 시작으로 원료 의약품(API) 및 아미노산 국산화를 통해 사업기반을 확대했습니다. 그 후 화장품 원료, 의약품, 클린 바이오 소재, 화장품 OEM ODM, 인체 적용시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 대봉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용석 대표님의 경력을 보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더군요. 약학대학과 의과대학은 화장품 제조업에 이상적인 콤비로 생각되는데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의과대학에서 연수하셨나요?

박진오 저는 임상 의사보다는 연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 입학했었습니다. 막상 의대에서 공부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IMF시절, 고민에 차 힘들어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회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봉엘에스를 지속가능한 천연소재 중심의 연구개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봉엘에스 창업 초기에 쓰던 반응기와 전기분해 장치를 재해석한 설치 작품

신용석 송도 신사옥의 구조를 보아도 박 대표의 결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봉엘에스 신사옥의 특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진오 송도 신사옥은 화장품 원료 개발부터 제조와 임상까지를 하나로 연결한 원스톱 개발 체계의 통합 클러스터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과 연구개발 효율성이 강화되면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OTC 및 의약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통합 생산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용석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뒷받침한 K-뷰티가 세계적인 화두가 된 비결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박진오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도 까다롭게 알려진 일본 소비자들보다도 훨씬 예민하고 더 많은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 단계부터 더 다양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신제품 개발 속도에 더해, 화장품과 유사한 것도 화장품 카테고리에 넣어 연구개발을 하는 등 도전을 통해 앞서가는 융합 기술도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의 세계화에 K-뷰티도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송도 신사옥은 화장품 원료 개발부터 제조와 임상까지를 하나로 연결한 원스톱 개발 체계의 통합 클러스터입니다.

신용석 K-뷰티의 전성시대를 지속시킬 방안은 무엇일까요?
박진오 K-뷰티의 경쟁력은 결국 소재 기술력과 연구·개발(R&D)에 기반한 클린 뷰티와 그린 바이오에 있다고 봅니다. 대봉엘에스는 천연 소재 기반의 클린 뷰티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기능성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뷰티는 단순 제품 경쟁 단계를 넘어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소재 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용석 K-뷰티를 지원하는 그린 바이오의 원자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진오 50여 개 이상의 대표적인 천연 유기농 원료를 취급합니다. 그중에서 전라남도 고흥에서 많이 생산되는 유자를 가공하면서 씨는 버리고 있었는데, 유자씨의 기름을 짜서 몸에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오 대표는 대봉엘에스를 지속가능한 천연소재 중심의 연구개발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동백과 편백 등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화에서 나는 쑥이나 인삼도 그린 바이오의 좋은 원료입니다. 이들 원자재를 발효과정이나 친환경 촉매를 이용하여 제품의 효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안전하고 효능이 극대화된 제품을 만드는 그린 바이오가 K-뷰티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지요.

신용석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진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세계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유럽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국인에게 우호적이고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K-문화와 함께 K-뷰티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활성화되면 한국 화장품 산업의 위상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용석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K-뷰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봉엘에스의 송도 시대 개막과 함께 회장님의 타이아득(他利我得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도 득이 된다) 정신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제품/사업 의약품원료, 화장품원료 제조, 도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101



대봉엘에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THE KEY PLAYERS OF IFEZ

도시디자인단

도시의 경관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다

도시의 얼굴은 건물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거리와 풍경, 빛과 시선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하나의 인상이며, 그 안에서 시민의 일상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서로 다른 공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고,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도시의 품격을 다듬어 온 도시디자인단을 만났다.

글. 황예지 사진. 이덕재



도시 경관의 '컨트롤 타워',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단은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전체의 경관 품질과 도시 이미지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다. 도시의 디자인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장기적인 도시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도시디자인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경관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 심의를 통해 다양한 개발 계획이 도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한다. 또한 시

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공간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 심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며, 도시 전반에 일관된 기준을 축적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 도시디자인은 법적·기술적 검토를 넘어 도시 전반의 흐름과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영역으로, 개별 공간이 아닌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도시 경험을 확장하는 미디어콘텐츠를 기획하여 도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스타트업파크에 구축된 미디어 보드

경관 심의, 도시의 흐름을 완성하는 과정

도시디자인단의 역할은 경관 심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도시디자인단이 수행하는 경관 심의는 단순한 디자인 검토를 넘어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맥락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개별 건축물의 형태나 입면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이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가로경관과 스카이라인, 통풍축, 보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경관 지침의 반영 여부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개발의 효율성과 도시의 공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언제나 가장 큰 과제이기

도 하다. 사업자는 경제성과 사업 속도를 중시하는 반면, 행정은 장기적인 도시 가치와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디자인단은 경관 심의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재심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승인 절차를 넘어 행정과 민간이 함께 도시의 방향을 고민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준이 축적되면서 경관은 도시의 핵심 가치이자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공간의 질을 높이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도시의 가치

도시디자인단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부심이 스며드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는 단순한 건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곳을 걷고 머무는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이 켜켜이 쌓이는 터전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공원 산책로에서 감각적인 건축물을 감상하고, 건물 안에서는 가꿔진 공원과 바다를 조망하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처럼 시민들이 일상의 풍경 속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체감하고, “내가 사는 도시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깊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도시디자인단이 그리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다. 이처럼 도시디자인단이 만들어가는 변화는,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일상을 바꿔 나가고 있다.

공간을 넘어 경험으로 확장되는 도시디자인 전략

도시디자인단은 경관 정책을 통해 도시 공간의 활용 방식과 시민의 경험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스타트업파크 미디어 보드와 ‘오아시스 에리어’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스타트업파크에 구축된 미디어 보드는 미디어 아트와 공공 콘텐츠를 결합한 시도로, 도시의 이미지를 한층 입체적으로 만들며 경관이 시각을 넘어 경험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아시스 에리어’ 사업 또한 송도·영종·청라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녹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전역에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분산된 공원을 가로수길인 ‘루프(Loop)’로 연결하고, 그 사이를 정원길인 ‘링크(Link)’로 촘촘히 이어 산책과 휴식, 조망이 특정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전반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시각적 쾌적함을 넘어 신체적 활동까지 고려한 설계로, 사람 중심의 풍경이 도시 곳곳에 흐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축적되면서, 시민은 일상 속에서 공간의 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체감하게 된다.



IFEZ의 도시 경관에 대한 논의를 나누고 있는 도시디자인단의 모습

MINI INTERVIEW

우리에게 도시디자인이란 []다.



[방정식]

도시디자인은 단순히 감각적인 결과물을 내는 예술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를 조합해 도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밀한 계산 과정입니다. ‘사업성의 효율’과 ‘공공의 품격’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변수들을 함수에 넣고, 경관 심의와 정책이라는 연산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답(Solution)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마치 고난도 방정식을 푸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방정식의 결과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라고 믿습니다.

이민수 단장



[기억 만들기]

사람들은 특정 건물보다도 그 공간에서 느꼈던 분위기와 경험을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은 이러한 기억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FEZ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에서는 일관된 경관과 공간의 흐름을 통해 도시만의 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그 도시를 떠올렸을 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도시디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숙 주무관



[일상 속 기쁨]

도시경관 관리는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거리와 공간의 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FEZ는 다양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조화로운 경관 속에서도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IFEZ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일상 속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김현정 주무관

강화남단 개발 전략, 답은 브랜딩에 있다

— WRITER —



글. 조한필

(사) 한국도시설계학회
컴팩트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

Branding Ganghwa



강화남단 신규지구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사업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약 6.32km ²	2025~2035년	약 3.1조원



73구 완봉이 던지는 전략의 질문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 청보 핀토스 소속이었던 임호균 투수는 1987년 8월 25일 송의운동장에서 열린 해태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 등판해, 경기 시작 1시간 54분 만에 73구로 완봉승을 거두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해태 타이거즈는 1987년 KBO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한 최강 팀이었으며, 이들을 상대로 한 최소 투구 완봉승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78구 완봉승으로 상징되는 그렉 매덕스(Greg Maddux)의 기록보다도 5구 적은 투구수로 달성된 성과다.

임호균은 공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던지는 제구력이 뛰어난 투수였다. 그는 삼진으로 타자를 압도하기보다, 타자가 좋아하는 위치로 공을 던져 범타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한 경기에서 27명의 타자를 모두 아웃시키며 단 한 명의 주자도 허용하지 않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투구 방식은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 승부를 설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인천 강화남단 개발 전략'의 방향을 다시 묻는다.

강화남단, 경쟁이 아닌 '강점으로 승부하는 전략'

전략이란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모든 전략이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 임호균이 보여준 방식은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 승부를 설계하는 접근이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기보다, 정교한 제구력이라는 확실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면승부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효율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경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략은 오늘날 산업 환경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기업들은 빠른 환경 적응력과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산업에 집중된 구조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경쟁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강화남단 역시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니라, 인천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설계해야 할 공간이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춘 브랜딩 전략을 통해, 강화남단은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강화남단, 스토리로 완성되는 브랜드

비전이란 스스로가 설정한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말한다. 강화남단에 대한 브랜딩 역시 단순한 개발을 넘어, 어떤 이야기와 의미를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한국의 유산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직접 경험하려는 관광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전 세계 개봉 이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화남단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매우 큰 가치를 지닌 스토리텔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홍익인간 재세이화'라는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가장 먼저 구현할 수 있는 이야기 역시 이곳에 담겨 있다.

청보 핀토스 임호균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승부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문학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경쟁 구도 속에서 타 지역을 폄하하거나 외형에 치중된 화려한 홍보 마케팅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왜 수

많은 해외 알파세대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찾는지, 근정전에 있는 정(鼎)에 새겨진 팔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강화남단의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의 전환'

강화남단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다. 관중이 아닌 코치의 시선으로 핵심역량을 발굴하고, 산·학·정이 함께 협력해 미래세대로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쟁력'과 '경쟁력으로 보이는 힘',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킹'에 대한 브랜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호시우행(虎視牛行)'처럼 판단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신중하고 끈기 있게 이어갈 인천시. 강화남단 사업을 계기로 인천시와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강국을 향해 시너지를 내며 나아가길 소망해본다. 임호균의 73구 완봉승이 전략의 상징으로 남았듯, 강화남단 또한 새로운 전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Insight in site, IFEZ

IFEZ는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이자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유엔(UN) 기구부터 국제기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글로벌센터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IFEZ의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소식을 전한다.



셀트리온,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7대 실천 과제' 전격 가동

셀트리온이 국제 유가 상승과 정부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방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7가지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임직원 참여형 프로젝트다.

우선, 일상 속 전력과 유류 소비를 줄이는 데 집중한다.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 '자율 차량 10부제'를 운영하며, 교통 약자(임산부·장애인)와 친환경 차량은 제외해 운영 효율을 높였다. 사업장 내부는 낮 시간대 지정 구역 소등을 생활화하고 냉방 26°C 이상, 난방 18°C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특히 대기전력의 소모를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플러그를 도입하고 퇴근 시 전자기기 전원 차단을 규정화했다.

생산 시설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클린룸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통해 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 결재 시스템을 통한 종이 없는 사무 환경 조성도 계단 이용 독려로 저탄소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 에너지 도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해서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업종 기초 의약품 제조업
제품/사업 의약품(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연구, 개발, 제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극지연구소, 남극 심해 열수 시스템 세계 최초 직접 관측 성공

대한민국 극지연구소가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채집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해령은 마그마의 분출을 통해 해양 지각으로 형성된 거대 산맥이다. 그리고 마그마와 반응해 바닷물이 솟구치면서 발생하는 이곳의 열수 시스템은 미지의 생명체와 유용 자원이 밀집한 학술적·경제적 보고다.

박승헌 박사 연구팀은 2025년 11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타고 남극 장보고 기지에서 약 1,200km 떨어진 수심 1,300m의 해저산 '날개'의 탐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인잠수정을 투입해 해저면에 대규모 분포한 고가치 열수 광석들의 존재를 영상으로 포착하며, 해당 해역의 자원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냈다.

이번 탐사에서는 무인잠수정의 정밀 로봇 팔과 흡입 장치를 활용해 심해 생물 12개체를 채집하는 결실도 보였다. 연구팀은 확보된 시료를 바탕으로 신종 여부를 확인하고, 극한의 심해 열수 생태계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첨단 로봇을 활용해 남극 중앙해령의 열수 환경을 직접 확인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약적 발전"이라며, 이번 성과가 기존 선상 탐사의 한계를 넘어선 정밀한 데이터 확보의 기점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업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글로벌 혁신 거점의 탄생, IGC 2030 비전 선포 성료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지난 4월 2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IGC 2030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IGC가 그간 공들여온 비전 고도화 TF와 워크숍의 결실을 공포하며, 글로벌 교육·연구·산학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알렸다.

특히 이번 비전 수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캠퍼스 내 5개 외국 대학, 그리고 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낸 최초의 공동 논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현장에는 인천시장, 시의장,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제청 관계자를 포함해 5개 입주 대학 총장단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집결해 뜻을 모았다.

행사는 상징적인 '비전 현판식'을 서막으로 CEO의 미래 전략 프레젠테이션, 입주 대학 간 실천 협약식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모든 참석자가 동시에 비전 슬로건을 펼쳐 보이는 배너 퍼포먼스를 통해 IGC의 단합된 의지를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IGC는 '창조적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식·산업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설계'를 새 미션으로 설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학·연·산 K-플랫폼 IGC, 2030'이라는 목표를 확정했다.



재단/법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ifez — NATURE Trip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하는
IFEZ 생태 체험 여행

봄꽃이 머물다 간 자리에 짙푸른 녹음이 채워지는 5월과 6월, IFEZ는 역동적인 배움의 무대로 변모한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자연'이다. 광활한 갯벌부터 숲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자원관까지.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IFEZ의 생태 교육 여행지들을 함께 둘러보자.



세계평화의 숲



영종둘레길1코스 (건강백년길)

세계평화의 숲과 유수지공원을 관통하는 영종둘레길1코스를 산책하는 것도 영종도의 생태를 즐기는 방법 중의 하나다. 서해부터 백련산 아래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봄에는 벚꽃길, 여름에는 연꽃을 관찰하며 힐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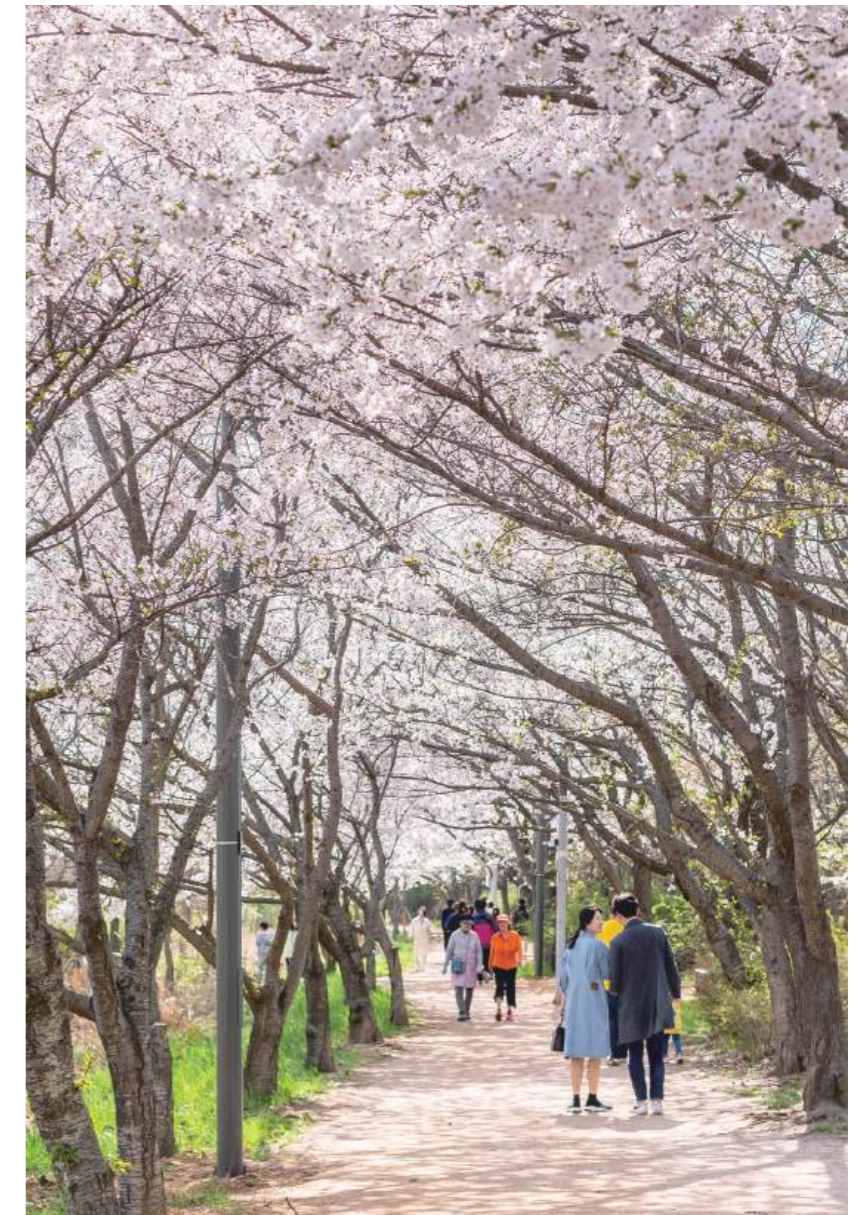
난이도 하
소요 시간 약 1시간 20분
총길이 5.6km



건강백년길
위치정보

인천 영종도 운서동에 있는 세계평화의 숲은 2009년 시민과 기업이 뜻을 모아 조성한 자연생태공원이다. 숲과 습지, 그리고 서해의 광활한 갯벌이 하나의 생태계로 맞물린 이곳은, 이제 인간과 동식물이 온기를 나누며 공존하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었다. 세계평화의 숲에선 봄이면 발치마다 수줍게 피어난 제비꽃과 현호색이 인사를 건네고, 고라니와 너구리 등 다양한 생명들이 저마다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현장을 볼 수 있다. 또한 숲 사이로 펼쳐진 유수지에는 도요새와 왜가리, 백로가 우아한 날갯짓으로 수면 위를 수놓는 장관이 펼쳐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잘게 부서지는 바람 소리에 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 31-35 (운서동)



국립생물자원관



국내 최대 규모의 생물 자원 전문 기관인 이곳은 우리나라 자생 생물의 표본과 실물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서 마주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동물 표본들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제주의 원시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실내 온실 ‘곶자왓 생태관’은 싱그러운 습도와 향기로 초여름의 열기를 식히는 녹색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생물 다양성의 역사를 한눈에 살피고 넓은 야외 정원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즐기는 시간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생태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오류동)
문의 032-590-7000

청라공원 숲 체험 프로그램

청라공원 내 노을공원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 프로그램이다. 도심에서는 찾기 힘든 휴과 나무, 곤충들을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직접 보고 만지며 느껴볼 수 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선착순)
운영시간(개인) (1부) 10시~11시 30분
(2부) 13시 30분~15시
(3부) 16시~17시

문의 032-456-2741



숲 체험 신청
바로가기



마시안 갯벌
체험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시안 갯벌체험장

마시안 마을 어촌계에서는 2014년부터 마시안 해변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육지의 흙과는 전혀 다른 갯벌 특유의 푹신하고 찰진 질감을 느끼며 펄을 기본 좋게 묻혀가는 과정을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동족, 골뱅이, 소라 등 갯벌이 품은 다채로운 생물들을 직접 채취해 볼 수 있으며, 갯벌마차와 갯벌 택시도 운영하고 있어 더욱 편리한 체험이 가능하다.

이용료 대인 10,000원
소인(초등학생) 5,000원
어린이(미취학아동) 3,000원
대여료 호미 1,000원, 장화 2,000원
※ 개인은 현장 결제, 단체 예약 가능

마시안 해변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마시안 해변은 물이 빠지면서 거대한 생태 교육장으로 변모한다. 광활한 갯벌 위로 장화를 신고 첫발을 내딛는 순간, 발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펄의 감촉으로 온몸의 감각을 깨워보자. 호미 끝에 걸리는 조개의 묵직한 손맛은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되찾아 주는 매개체가 된다. IFEZ의 대표적인 생태 현장 학습 명소인 영종의 갯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가장 가깝게 호흡하며 생명의 에너지를 배워갈 수 있다.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118(덕교동)

IFEZ CULTURE

May+June

아트센터인천

클래식부터 재즈, 뮤지컬, 무용 등 인천 예술의 중심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리는 주요 공연 일정을 지금 소개한다.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 콘서트 2026 - 인천(송도)

공연일정 5월 5일 (화) 14: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20분
 티켓가격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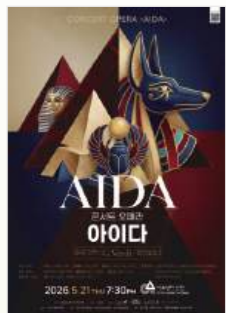
라하브 사니 & 뮌헨 필하모니

공연일정 5월 8일 (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115분
 티켓가격 R석 38만 원, S석 32만 원, A석 26만 원, B석 16만 원, C석 9만 원



M&M 시리즈 I <프로코피에프&최송하>

공연일정 5월 9일 (토) 17: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100분
 티켓가격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콘서트오페라 <아이다>

공연일정 5월 21일 (목)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100분
 티켓가격 VIP석 15만 원, R석 10만 원, S석 5만 원



ACI 키즈 콘서트 <클럽 그림책 콘서트> II

공연일정 6월 6일 (토) 15:0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5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44회 정기연주회 <인천시향의 차이콥스키> (IPO, Last Symphonies I)

공연일정 6월 19일 (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95분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트라이보울 시리즈 - 심소정 X 하프: 언리미티드 UNLIMITED

공연일정 5월 16일 (토) 16:0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트라이보울 시리즈 - BONANZA(보난자), 피리밴드 저클

공연일정 6월 24일 (수) 19:3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트라이보울

공연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자.



아트센터인천
 위치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문의 032-453-7700



트라이보울
 위치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문의 032-832-7996



반짝반짝 빛나는 마술사의 방

행사일정 5월 23일 (토) 11:00, 14:00, 16:0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55분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문의 010-3013-4643



판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공연일정 6월 13일 (토) 14:00, 18:0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8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이달의 스페셜



트라이보울에서는 클래식 선율에 봄의 향기를 담아 전하는 특별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클래식이 전하는 울림을 즐겨보자.

일정	프로그램	티켓가격
5. 8(금) 19:30	TRIBOWL Opening Concert 해설이 있는 조재혁 피아노 리사이틀	전석 20,000원
5. 9(토) 11:00	Matinee at TRIBOWL 양상블 파체	전석 15,000원
	Ensembles in TRIBOWL 문태국 & 박종혜 듀오	전석 20,000원
5. 10(일) 11:00	Matinee at TRIBOWL 아렌트 & 정민호 Early Musique	전석 15,000원
	TRIBOWL FAMILY HARMONY 참여형 공연	무료
18:00	TRIBOWL Festive Chamber 트라이보울 페스티벌 체임버	전석 20,000원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및 야외 브릿지
 대상 5세 이상
 문의 032-833-5993

페스티벌
 상세보기



Songdo ConvensiA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해양 산업의 트렌드 향로를 열다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 6월 개최

인천광역시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 특화 전시회, '2026 국제해양·안전대전(KOREA OCEAN EXPO 2026)'이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제전시협회(UFI)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마이스(MICE) 축제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며 한층 진화된 해양 기술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관은 총 9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약 200개에 달하는 국내외 대표 조선소와 첨단 장비 기업들이 집결해 역대 최대 규모의 위상을 증명한다. 특히 기존의 조선·방산·해양안전 분야를 넘어, 올해는 AI 자율운항과 저탄소 친환경 선박, 드론 및 로봇을 활용한 해상 구조 솔루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해양산업의 청사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프로그램도 내실을 기했다. 세계 각국의 해양치안 기관과 해외 코스트가드(Coast Guard) 구매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는 물론, 국내 해경 및 주요 조선소 관계자와의 1:1 매칭 상담을 통해 참가 기업들의 글로벌 판로 개척과 실질 계약 체결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코마린 컨퍼런스'와 '차세대 함정 발전 컨퍼런스' 등 전문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동시 개최되어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해양 기술 트렌드의 장이 펼쳐진다.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전시회가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 속에서 기술 표준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인천이 세계적인 해양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5월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0	1	2
				○ 2026 인천 밀리언쇼 우수중소기업&농수산물박람회	○ 인천웨딩박람회(5월 1차)	○ 미스트롯4 콘서트
3	4	5	6	7	8	9
○ 2026 인천 밀리언쇼 우수중소기업&농수산물박람회				○ 제32회 인천 베이비&키즈페어		○ 암웨이프리덤 OSR(5월)
○ 인천웨딩박람회(5월 1차)						○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5월 1차)
10	11	12	13	14	15	16
○ 제32회 인천 베이비 & 키즈페어		○ 해양경찰 외상처치교육(1)		○ 롤루레몬 하이룩스 리커버리존		○ 2026 HYROX Incheon
○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5월 1차)		○ 대한사립학교총회				○ 인천광역시의회 학술대회
○ 미술대학 입시설명회			○ 해양경찰 외상처치교육(2)			○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5월 2차)
17	18	19	20	21	22	23
○ 롤루레몬 하이룩스 리커버리존			○ Bio Process 세미나	○ 경희대학교 입학설명회(1)		○ [인천] 2026 박지현 콘서트 쇼맨십 시즌2
○ 2026 HYROX Incheon				○ 경희대학교 입학설명회(2)		○ 썬 엠마 토크쇼
○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5월 2차)						○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5월 3차)
						○ 2026 송도 렌타일페어
24	25	26	27	28	29	30
○ [인천] 2026 박지현 콘서트 쇼맨십 시즌2	○ KITECH 생산기술 대전환 컨퍼런스			○ 구급대원 외상처치교육(4)	○ 2026 인천낚시박람회	○ 인천웨딩박람회(5월 2차)
○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5월 3차)	○ 소통교육강연(5월)		○ 구급대원 외상처치교육(3)			
○ 2026 송도 렌타일페어			○ 인천-텐진 국제학술교류			
31						
○ 2026 인천낚시박람회						
○ 인천웨딩박람회(5월 2차)						

해양 레저의 A to Z

2026 인천 낚시 박람회 5월 송도서 개막



해양 레저 전시회인 '2026 인천낚시박람회'가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송도컨벤시아 Hall 1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낚시 애호가부터 해양 레저 입문자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관련 산업의 최신 흐름과 다채로운 용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전시장에서는 민물·바다·루어 낚시용 낚시대와 릴, 라인 등 필수 장비는 물론, 어군탐지기, 낚시 전용 의류 및 신발, 각종 캠핑용품까지 낚시와 레저를 결합한 전 품목이 소개된다. 특히 낚시 보트, 트레일러 등 고부가가치 해양 레저 장비와 더불어 최근 주목받는 지능형 낚시 기술 등도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등록 절차는 사전과 현장으로 구분된다. 현장 등록 시 입장료는 일반인 기준 8,000원이지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방문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약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관련 증명서 제시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동반 시 무료입장이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 문화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낚시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비즈니스의 장을,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여가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

정보를 찾는 건 귀찮지만,
IFEZ는 알고 싶은 당신에게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IFEZ의 모든 것!

퀴즈 풀고 선물 받자!

퀴즈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5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5월 31일(일)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참여방법

연락처, 이름, 주소와 정답을 함께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

※ 당첨자는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세계가 공인한 해상 랜드마크 '더 스카이 18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하늘대교에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를 선보이며 글로벌 관광 명소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진다. 2026년 5월 정식 개장하는 청라하늘대교의 주탑 전망대 '더 스카이 184(The Sky 184)'는 지상 184.2m 높이로,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라는 타이틀과 함께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며 독보적인 인프라 경쟁력을 증명했다. (중략) '옛지위크'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며, 서해의 낙조를 오롯이 품은 '해상 보행데크'는 방문객들에게 평온한 휴식을 제공한다.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센터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_____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며,
서해의 낙조를 오롯이 품은 '해상 보행데크'는 방문객들에게
평온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 ① 옛지위크 ② 스카이위크 ③ 옛지데크 ④ 더 스카이 184

지난호 당첨자 김희태, 강영숙, 구영조, 김기인, 양태인

추억을 공유하는 IFEZ 일상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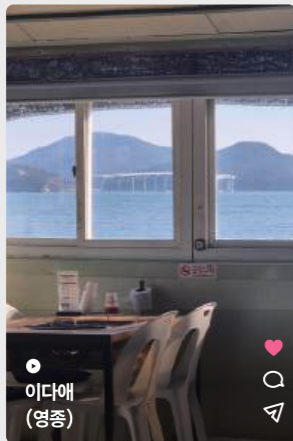
IFEZ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감

2026년 5월 31일(일)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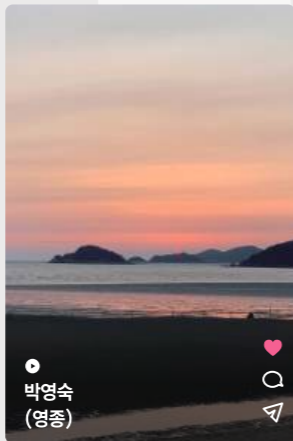
※ 사진파일, 사진설명,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사진과
사연은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이다애 (영종)

기름값 인상으로 드라이브가 부담스러운 요즘, 영종도 통행료 인하 덕분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영종도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바다도 보고 조개 구이도 먹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박영숙 (영종)

오랜만에 가족들과 영종도에 놀러와, 일몰 보며 힐링하고 갑니다! 영종도의 너른 바다에 마음도 한껏 시원해지는 날이 다녀왔습니다~



조재홍 (송도)

업무차 송도에 왔다가 경원재 한옥호텔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 왔어요! 한옥 사이로 피어난 꽃들이 고즈넉한 정취를 느끼게 하네요. 빌딩 가득한 송도에 이런 한국의 미가 가득한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Opinion Leader's Review on IFEZ vol.128

WRITER



한규섭

파이박스 코리아 대표이사

주요이력

전) 스펙트리스 코리아 근무
전) 지멘스 코리아 근무
전) 한국요꼬가와 전기 근무

IFEZ의 미래를 설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IFEZ Journal>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을까?

지난 호에 담긴 IFEZ의 주요 소식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리뷰해 보았다.

데이터로 증명한 도시 혁신, IFEZ의 오늘과 내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집약한 이번 128호 저널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서사와 같습니다. 2003년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송도, 영종, 청라가 황무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거듭난 과정을 되짚어 보며,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매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표를 통해 IFEZ의 국가적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첨단 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이제는 단순 제조를 넘어 R&D와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질적 성장단계(Value Up)로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글로벌 톱 10 도시'라는 목표가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와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약속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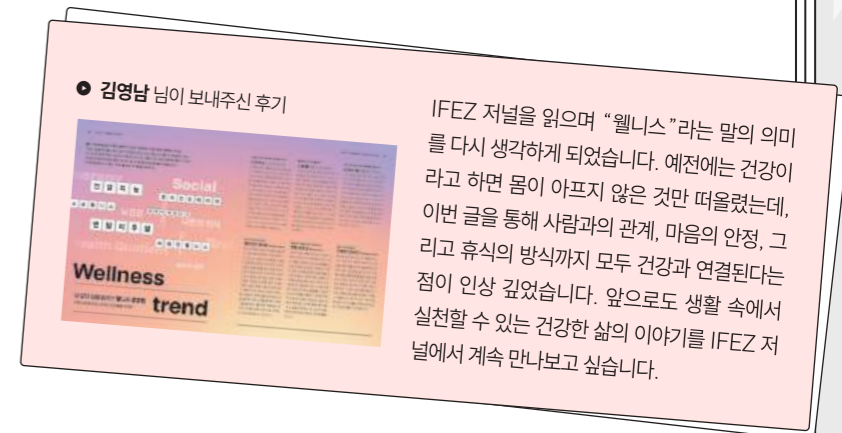
나아가 저널은 송도위터프런트 조성과 청라의료복합타운,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IGC)를 통한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과 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창조 도시'의 청사진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이는 IFEZ가 단순히 외자 유치에 집중하는 경제구역을 넘어, 사람과 기술, 그리고 미래가치가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세계적인 정주 모델로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호는 혁신적인 기업들의 저력과 체계적인 행정전략이 맞물려 만들어 낸 값진 기록이며, 앞으로 IFEZ가 세계 무대에서 보여줄 더 큰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고취시키는 깊이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IFEZ 저널> 독자 후기 이벤트 후기를 부탁해!

IFEZ 저널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읽은 기사, 다음 IFEZ 저널에서
보고 싶은 기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5월 31일(일)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 IFEZ 저널에 대한 후기,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후기는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원고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김영남 님이 보내주신 후기

IFEZ 저널을 읽으며 "웰니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이라고 하면 몸이 아프지 않은 것만 떠올렸는데, 이번 글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안정, 그리고 휴식의 방식까지 모두 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이야기를 IFEZ 저널에서 계속 만나보고 싶습니다.